칼 럼

김 수 종 뉴스1 고문

테슬라 주가의 정체

테슬라 자동차 CEO 일론 머스크는 2020년 지구촌 최고의 뉴스메이커일 듯싶다. 그의 일거수 일투족이 화젯거리다.

지난 7월 4일은 미국 독립기념일이었다. 그날 흑인 랩가수 카니예 웨스트가 트위터를 통해 미국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겠다고 선언하자, 머스크가 "전폭적인 지지를 보낸다"고 화답해서 미국 사회에 뉴스 토픽을 제공했다. 6일에는 머스크가 테슬라를 상징하는 빨간색 의류 아이템 쇼트쇼츠를 한정판으로 내놓았다는 트위터 문자를 날려 사람들의 이목을 끌었다.

머스크가 연관된 뉴스의 절정은 6일 월스트리트를 경악하게 한 테슬라자동차의 주가폭등이다. 전 거래일보다 무려 13% 오른 테슬라 주가를 놓고 세계 주식시장은 흥분에 빠졌다. 전기자동차 '모델3'의 판매실적이 일으킨 소동이다.

엊그제 마포 동네 골목길을 지나다가 눈에 익숙지 않은 자동차가 휙 지나가기에 자세히 보니 테슬라 전기자동차 '모델3'이었다. 작년에 한국에 상륙한 모델3은 서울 거리에서는 물론이고 저멀리 제주도에서도 볼 수 있는 자동차다.

작년 하반기 한국에 상륙한 테슬라의 모델3은 올해 상반기(1~6월) 국내시장에서 6839대의 판매를 기록했다고 한다. 현대차의 전기차 모델인 '코나'의 지난해 상반기 판매 대수가 7997대였는데 올해는 4139대로 48.2%나 줄었다. 테슬라 모델3이 코나보다 거의 3000대 많이 팔렸다니 현대나 기아 등 국내 전기차 메이커들이 초긴장 상태에 들어갔을게 분명하다.

한국의 자동차 소비시장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얼어붙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테슬라 모델3이 국내시장을 석권하는 현상은 무엇을 말해주는 것일까. 한국의 고소득 젊은 층이 친환경 자율주행 개념의 테슬라 디자인에 끌려가고 있다는 신호가 아닐까.

테슬라 모델3의 세계시장 석권의 징후는 이미 작년 유럽에서 나타났다. 작년 말 유럽 판매량이 9만3000대에 이르렀다. 독일 자동차 메이커들이 작년 말부터 초긴장 모드로 바뀌었다고 한다. 예상을 뛰어넘은 모델3의 유럽 판매실적에다 테슬라의 '기가팩토리'가 베를린 근교에 세워지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6일 뉴욕증권시장에서 테슬라 주가는 1371달러로 마감했다. 꼭 1년 전보다 500% 올랐다. 월가의 전문가들이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다. 얼마 전 일론 머스크가 테슬라 주가가 과대평가 됐다고 경고해도 테슬라 주가의 고공행진은 그칠 줄 몰랐다. 월스트리트의 한 투자회사 전문가의 논평이 테슬라 주가의 정체를 잘 말해주는 게 아닌가 싶다. "전통적인 방법에 의한 테슬라 주식평가는 의미가 없다. 테슬라는 전통적인 회사가 아니다."

테슬라의 주가총액이 2500억 달러를 넘었다. 연간 판매량이 50만대도 안 되는 자동차 회사가 지난 50년간 세계자동차 시장을 지배했던 포드 GM 폭스바겐 도요타 등 쟁쟁한 자동차메이커의 주가 총액을 하나하나 앞질러 '실리콘밸리 자동차시대'를 열어 놓았다.

테슬라 주가폭등이 일으키는 야단법석을 보며 이런 생각을 해본다. 테슬라 주가의 정체는 모델3이 아니라 일론 머스크의 세계관에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말이다.

남아프리카의 야생을 배경으로 자란 일론 머스크는 화성식민지를 꿈꾸며 소년기를 보냈고, 실리콘밸리에서 스타트-업을 만들면서도 그 꿈을 버리지 않았다. 그는 테슬라에 손대기 전에 '스페이스X'를 2003년 창업하여 우주항공분야 사업을 시작했다. 그는 공상과학소설에서처럼 하늘에서 인류의 길을 찾았다. 테슬라도 그런 생각의 연장선상에서 생겨난 기업이다.

기후변화를 일으키는 화석연료가 아니라 태양에너지를 직접 사용하는 산업생태계를 구상한 것이다. 그런 생각의 바탕에서 생겨난 것이 '테슬라'이고 '솔라시티'이다. 그는 19세기에 발명되었으나 석유 붐에 의해 잠들었던 전기자동차를 21세기에 잠에서 깨어나게 한 것이 테슬라이고, 테슬라 자동차를 움직이게 하는 전기에너지의 공급처로 솔라시티(SolarCity)를 창업했다. 스페이스X, 테슬라, 솔라시티는 일론 머스크가 구상하는 미래 기업, 즉 지구와 하늘을 연결하는 산업생태계다.

머스크는 우주선 중고품 재활용 아이디어를 창안해 실현했고, 지난봄 스페이스X는 민간기업 최초로 NASA(미항공우주국) 우주인 2명을 국제우주정거장에 무사히 보내는 쾌거를 이룩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COVID19) 사태는 기후변화 등 지구의 건강 문제에 대한 새로운 지평을 요구하고 있어서 일론 머스크의 비전은 더욱 관심을 끌 수밖에 없다.

그래서 2020년이 일론 머스크에게 잘 들어맞는 한해가 되는 것 같다. 테슬라 주가의 실체가 여기에 있는 게 아닌가 생각해본다.

독자투고 E-mail : ihonam@naver.com

외부필자의 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장마철, 어린이 교통사고에 주의하자

장마는 6~7월까지 한반도 상공에서 북쪽의 차가운 고기압과 남쪽의 뜨거운 고기압이 만나서 생기는 커다란 전선이 형성되는 것으로 장마지역은 상승 구름이 만들어져 많은 비와 천둥번개를 동반한다.

빗길운전, 위생관리, 주택 및 건물 침수, 낙석 등 장마철에 주의하고 대비해야 할 것들이 많이 있다. 특히, 구급활동을 하다보면 비오는 날 학교주변이나 아파트 단지 내 어린이 교통사고로 출동이 잦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비가 오면 운전자는 차에 흐르는 빗물로 인해 시야가 흐려질 수 있고 우산을 쓴 어린이들은 우산에 가려 주변을 제대로 보지 못하게 된다. 또한 우산을 쓰지 않은 아이들은 비를 피해 빨리 건너기 위해 갑작스럽게 도로를 횡단하기도 한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운전자는 운행 전 와이퍼 등 차량 점검을 철저히 하고 학교주변이나 아파트 단지 내 등 차량 밀집지역을 지날 때 서행 및 어린이들은 빨간 신호등이라는 인식이 있어야 하겠다.

또한 부모들은 어린이들에게 밝은 색의 우산과 옷을 갖추게 하고 갑작스럽게 뛰지 않도록 하는 교육은 필수다. 학교 주변에 불법주·정차된 차량이나 아파트 단지 내 이중 삼중으로 주·정차된 차량은 운전자나 어린이의 시야를 방해할 뿐 아니라 화재나 환자 발생 등 유사시 소방차나 구급차 등 긴급차가 접근할 때 소방통로를 방해하는 요소임을 명심해야 한다. 조금만 신경 써도 예방할 수 있는 일을 쉽게 간과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다.

올 남은 장마 기간동안 운전자나 부모들이 차량 밀집지역에 대한 안전대책에 대해 충분히 고민하고 교육하여 어린이 교통사고가 한 건도 발생하지 않기를 바래본다.

한선근/보성119안전센터 소방위

社 說

검언유착 의혹, 철저히 수사하라

검언유착과 관련 윤석열 검찰총장의 최측근인 한동훈 검사장과 이동재 전 채널A 기자 사이에 오간 대화 녹취록이 공개됐다. 지난 2월 13일 당시 부산고검 차장검사이던 한 검사장 사무실에서 이 전 기자와 한 검사장이 나눈 얘기를 동석한 채널A 후배 기자가 녹음한 내용이라고 한다.

녹취록에는 이 기자가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신라젠 사건 연루 여부를 취재하려고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의 주거지 아파트를 찾아다닌다고 하자, 한 검사장이 "그건 해볼 만하지"라고 말한 것으로 돼 있다.

교도소에 수감 중인 이 전 대표에게 편지를 썼다는 말에는 한 검사장이 "그런 거 하다가 한 건 걸리면 되지"라고 했다는 대목도 나온다. 한 검사장이 강요미수 혐의로 구속된 이 기자와 공모했거나 동조한 게 아니냐는 의심을 살 만한 내용이다. 검찰 수사팀이 녹취록을 검언유착 의혹의 핵심 증거로 여기는 것도 그래서일 것이다. 이들의 공모 사실을 보다 확실히 밝히기 위해 철저한 수사가 필요해 보인다.

녹취록을 비롯해 사건 관련 자료에 대한 접근은 당사자나 수사팀 등 극히 제한적으로 이뤄질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는 논란이다. 특히 법무부와 검찰이 피의자 인권보호를 명분으로 피의사실 공표에 대해 엄격히 금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구속영장에 적시된 범죄사실을 연상케 하는 내용이 언론을 통해 공개되면 수사팀과 지휘 라인에 의혹의 시선이 쏠려 부담을 떠안을 수밖에 없다.

그런 만큼 수사팀은 한 점 의심 없는 실체적 진실규명을 통해 이런 어수선한 상황을 신속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다. 녹취록을 둘러싼 진실게임은 수사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결국 검찰의 기소로 가는 1차 관문인 수사심위의의 결론을 자신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이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확실한 수사 결과뿐이다. 더욱이 재판까지 가서 다투려면 수사의 성과물이 굳건해야 한다. 수사팀은 오로지 증거를 토대로 공정하고 엄정한 수사를 해야 한다.

생활정보전화

▲ 이주여성 긴급전화	1577-1366	▲ 기상예보	131
▲ 응급질병상담	1399	▲ 법률구조상담	132
▲ 미아·가출인 신고	182	▲ 인광 알코올 상담센터	222-5666
▲ 여성 긴급전화	1366	▲ 광주 남성의 전화	673-9001
▲ 청소년 상담 지원센터	1388	▲ 광주 여성의 전화	363-7739
▲ 아동보호전문기관	1577-1391	▲ 수도 고장신고	121
▲ 노인보호전문기관	1577-1389	▲ 전기고장 신고	123
▲ 응급의료센터	1399	▲ 가스사고 신고	383-0019

등록번호 광주 가 00021 (일간)
호남신문
대표전화 (062) 229-6000
기사제보 (062) 222-2580
팩 스 (062) 222-5547
회 장·발 행 인·편 집 인 김 평 호
편 집 국 장 직 무 대 리 서 선 옥
본 사 : 광주광역시 동구 남문로 753번길 7
서울 취재 본부 :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릉로62가길 16-1
Tel (02) 2238-0003
인터넷 호남신문 www.i-honam.com
1946년 4월 창간 / 구독료 월 10,000원 1부 500원 인 쇄 (주)남도프린테크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호남신문 후원 및 회원제 시행합니다

결코 쉽지 않은 길이지만 저희가 개척하겠습니다.
지금 보다 건전해질 수만 있다면 어렵지만 마다하지 않겠습니다.
외부로부터의 어떠한 압력이나 간섭에서도 자유롭기 위해서라면 당장의 손익에 급급해 하지 않겠습니다.

호남신문이 후원 및 회원제를 시행합니다.
액수의 많고 적음을 떠나 회원 여러분들의 피와 땀이 배인 후원금을 소중히 접수하겠습니다.
후원금으로 광고의 일부를 대체해 광고주의 유무형 압력 등 편집권 침해로부터 탈피해 자유로운 제작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특히 자본권력의 횡포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해 독자생존 체제를 구축해 나간다는 차원에서 작은 변화를 시작합니다.
호남신문은 후원 및 회원제의 시행으로 왜곡되지 않은 정론을 펼치는데 지역언론의 선봉장 역할을 자임합니다.

전국 일간지 최초로 복지면을 할애해 사회적 약자와 취약계층의 권익향상에 힘쓰고 있는 호남신문은 후원회원제를 통해 보다 더 굳건하게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당장 눈에 띄는 획기적인 성과를 기대하겠습니까마는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다 보면 작은 내가 모여서 강을 이루듯 우리가 지향하는 목표점에 다다를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호남신문은 후원 회원들의 자발적 후원으로 운영되는 시스템을 차차 정착시켜 나갈 것입니다.
호남신문의 작지만 큰 변화의 몸부림에 시도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동참을 기대합니다.

호남신문사

● 후원 계좌 농협 301-0262-7951-61 우체국 500330-01-007591 예금주 (주)에이치앤프레스